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한동안 '김치녀' 나 '된장녀'란 말이 일부 여성들의 행태를 풍자하는 비속어로 회자되는 것 같더니 얼마 전부터는 다소 세련된 뉘앙스를 풍기는 '아몰랑'이란 용어가 새롭게 등장했다. 이 용어는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귀찮은 일에 대해서는 "아, 난 그런 건 모르단 말야(아몰랑)"라는 말로 남성들에게 짜증이나 부리는 속속들이 불과하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어쨌든 여성들은 이기적이고 책임 없는, 아니 형편없는 사람들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은 확실하다. 남성 가운데서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듯이 여성들 중에서도 이런 저런 개성의 소유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유독 사이버 공간이나 방송매체에서 여성들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신조어가 끊임없이 생성, 유행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현상은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청년 실업 문제 등에서 심각한 위

기의식을 느낀 남성들이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어한 언어적 보복행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대부분의 단어들에 익숙한 성적 비유를 그대로 담고 있어 문제가 된다. 최근에는 남성들의 이런 여성비하에 맞대응하는 여성들의 남성조롱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상대방을 향해 내뱉는 품격 없는 언어들에 우리사회의 불안요인을 더욱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다. 솔직히 말해 글쓴이와 같은 50대 중반의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여성들의 급격한 권리신장은 일종의 근본적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우리세대가 자랄 때의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 다른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기성세대의 운명적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인지 어느 대학원생이 동료 여학생에게 "생수통 왜 안 옮겼어"라고 한 말이나 개그맨 장동민이 함께 출연한 여자 연예인을 쳐다보며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생각하고, (남자가 싫어할) 모든 걸 다 갖췄다"고 면박을 주는 장면 등에서 묘한 동질감과 통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굳이 부인하고 싶지 않다. 개인적으로도 그런 양태 내지는 튀는 여성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일 것

이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어디까지나 여성을 바라보는 지극히 사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이지만 이런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은 특별히 경계해야 할 일이다. 가끔은 소위 '잘난 여성들'을 심심치 않게 만나곤 한다. 그들 가운데는 위에서 말했던 여성혐오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아주 없지는 않다. '된장녀' 부터 '아몰랑' 까지 SNS · 방송 등 여성혐오 '뽕배' '나와 다르지만 너도 옳다'는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해 한 마디로 말해 평소에는 그렇게 '설치고, 떠들고, 말하고' 잘난 척 하면서 성가신 '생수통 옮기는' 일은 언제나 남성들의 몫으로 여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까. 물론 이와 같은 인식과 태도는 반(反)페미니즘적 사고이자 한국적 마초이즘의 불평등적 사고에서 나온 인간적 편견임을 인정한다. 어쩌면 시대착오적 가치

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 생각을 직접 언어로 표현하여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우리 모두가 "나와는 다르지만 너도 옳다"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들은 도덕적 성찰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초기경전인 <테라기따(Therigatha)>에서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얼마든지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부다는 성차별을 한적도 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부다에 의하면 남성과 여성은 서로의 양성성을 인정할 때 비로소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도량이 가능한 존재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나 이성혐오 언어는 팔정도의 정어(正語)에도 어긋나는 생활습관이다. 그렇다면 모든 불자들은 무심코 하는 그런 말들로부터 스스로 멀리 떨어져 살겠다는 작은 실천을 당장 행동으로 옮겨 보는 것이 어떨까?

社說

공의 기구, 실효성 있는 대책 '기대'

조계종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끝났다. 7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종단 개혁과 서의현 前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열린 5차 대중공사는 40여 일동안 지속됐던 의현 스님 재심 판결 논란에 대한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만큼 그 기대도 컸다. 이날 대중공사는 재심회결원 판결의 부당성과 관련 위원들의 사퇴를 권고하기로 공의를 모았다. 이와 함께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해 재심 논란의 해법과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결과를 중앙총회와 총무원에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8시간의 논의 끝에 대중들이 의현 스님의 재심 판결이 잘못됐음을 지적하고 재심회결원위원들을 사퇴할 것을 권고한 부분은 분명한 성과이다. 문제 해결의 키는 이제 새로 구성될 대중공의 기구에게 넘어갔다. 하지만 대중공의 기구 부분의 결의문을 살펴보면 명확한 구성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 "대중공의 기구

구성은 구성할 주체도 방향도 없는 100인 대중공사의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노정시킨 무의미한 결의"라는 논평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문은 포괄적이다 보니 해석의 폭도 넓다. 문제 해결을 받아 앉을 주체가 총무원인지 아니면 중앙총회인지 불분명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구성 주체가 정해지면 참여 범위와 인원, 활동 방향을 빠르게 정리해서 대중에게 발표해야 한다. 이미 40여 일동안 불교계는 안팎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다. 대중들이 결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빠른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대중공의 기구는 이번 사태의 조사와 해결책, 종단 과거사 정리 방안들을 도출해야 한다. 도출된 방안은 모두 실효성과 진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사회가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다. 사부대중의 노력과 정성이 다시 한번 요구된다.

교과서 불교 서술 변화 계기되길

불교계가 추진하는 초·중·고교 교과서의 불교 관련 서술 오류 바로잡기가 첫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교육과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연구팀'은 7월 30일 청주 한국교원대에서 '2015 교육과정 개정 2차 공청회'를 열고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서양윤리에 비해 소외받았던 동양윤리의 강화와 함께 세부내용에서 유교에 비해 홀대 받았던 불교 관련 내용이 대폭 보강됐다고 한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9월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안 발표를 앞둔 최종단계로 이번 발표된 시안이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과정 개정안이 나오면 교과서 서술 기준으로 교과서 집필자들은 교육과정안에 맞춰 교과서를 집필하게 된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육과정이다. 2009년 교육과정에서 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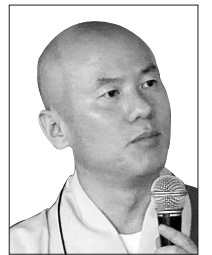
에 비해 포괄적으로 기술된 불교에 대한 설명이 2015년 개정안에는 보다 상세해졌으며 분량 또한 비축해졌다.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는 데 그친 이전 내용과는 달리 불교적 세계관과 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국 불교의 특징인 통불교 사상을 배울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 바뀌게 된다. 특히 '분쟁과 화합'에서 한국불교의 화쟁 사상이 주요한 교육 명제로 활용하는 것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를 가졌다. 유교와 더불어 한국인의 내재적 윤리에 깊게 파고들어 있는 사상이자, 그간 교과서 내 불교 서술이 부족했던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지금이라도 불교계의 의견이 반영된 도덕과 과정이 마련된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역사 교과서 등의 미흡한 불교 서술과 오류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발언대

전북 불교 활성화를 위해

'전북의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추진위'는 7월 25일 전주 전북불교회관에서 첫 번째 대회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불교계가 자체적으로 만든 첫 100인 대중공사여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그만큼 전북 불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주요 발제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전북 도심포교 사찰 설립 시급



종교별로 성인이 되기 전 현재의 종교를 믿는 사람은 개신교 46%로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다. 주 1회 이상 종교의례 참여율도 미비하다. 개신교인 80%가 천주교인 59%가 주 1회 종교의례에 참여하나 불교인 6%에 불과하다. 불교는 시대에 맞는 종교로서의 레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전국 전통사찰 935개 가운데 114곳(12.2%)으로 경북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이는 오래된 전통을 지닌 지역 불교문화 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17교구지역 사찰의 73%가 전통사찰이며 24교구는 59%가 전통사찰이다. 포교활성화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불교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 유아동 교육 기관, 전법단 현황은 전라도 지역 내에

서도 차이가 있지만 모두 하위권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양 교구 사찰의 대부분이 전통사찰을 포함한 산중사찰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창건된 도심포교당 또는 중심사찰의 기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른 각 시·군 중심의 도심포교 기능을 위한 핵심사찰 및 포교당이 절실한 입장이고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포교활성화를 위한 거점사찰과 같은 기존 인프라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17교구 금산사는 현재 전주 혁신도시 시 약 600명의 부지에 기원정사 건립불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4교구 선운사는 고창을 뉴타운 신도심으로 1,200명의 부지를 마련하여 불교타운 조성을 진행하고 있어 도심포교를 위한 미래불교를 위한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는 불교회관, 정읍은 영은사 등 도심포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전북 사찰, 사회 실천 나서야



'왜, 전라북도 지역에서 사부대중 대중공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전라북도 지역을 공통의 기반으로 하는 2개의 교구본사 사부대중이 지역 현안과 불교발전을 위해 자유롭고 평등하게 대중의 공의를 모으는 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볼 수 있다. 타 지역에 비해 종교역량과 교세는 열세로 볼 수 있으나 대중공사를 통해서 결집된 원력과 새로운 지도력으로 비전을 세운다면 시대적 상황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사찰과 단체의 경험을 통해서 개별사찰, 개별단체의 독립적인 사업만으로는 사회 환경의 높은 진입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때문에 스님들과 불자들의 높은 신심과 원력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내기 어렵고 상황을 개선하기에도 부족했다. 이로 인해서 진입장벽을 넘기 위한 '일정한 규모와 역량'을 형성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사찰과 사찰, 단체와 단체 간의 지역에서의 '연대와 협력'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종교활동의 공간이 되는 지역 사회에 기초하지 않는 한 종교의 존재 이유 달성과 유지도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새로운 시대 비전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부대중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찰이 전통적인 수행, 교육, 기도, 전법 활동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심화되고 지역사회에서의 지도력 또는 최소한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등 공적 영역으로 적극적인 진입이 필요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연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연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연불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宗正 흥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